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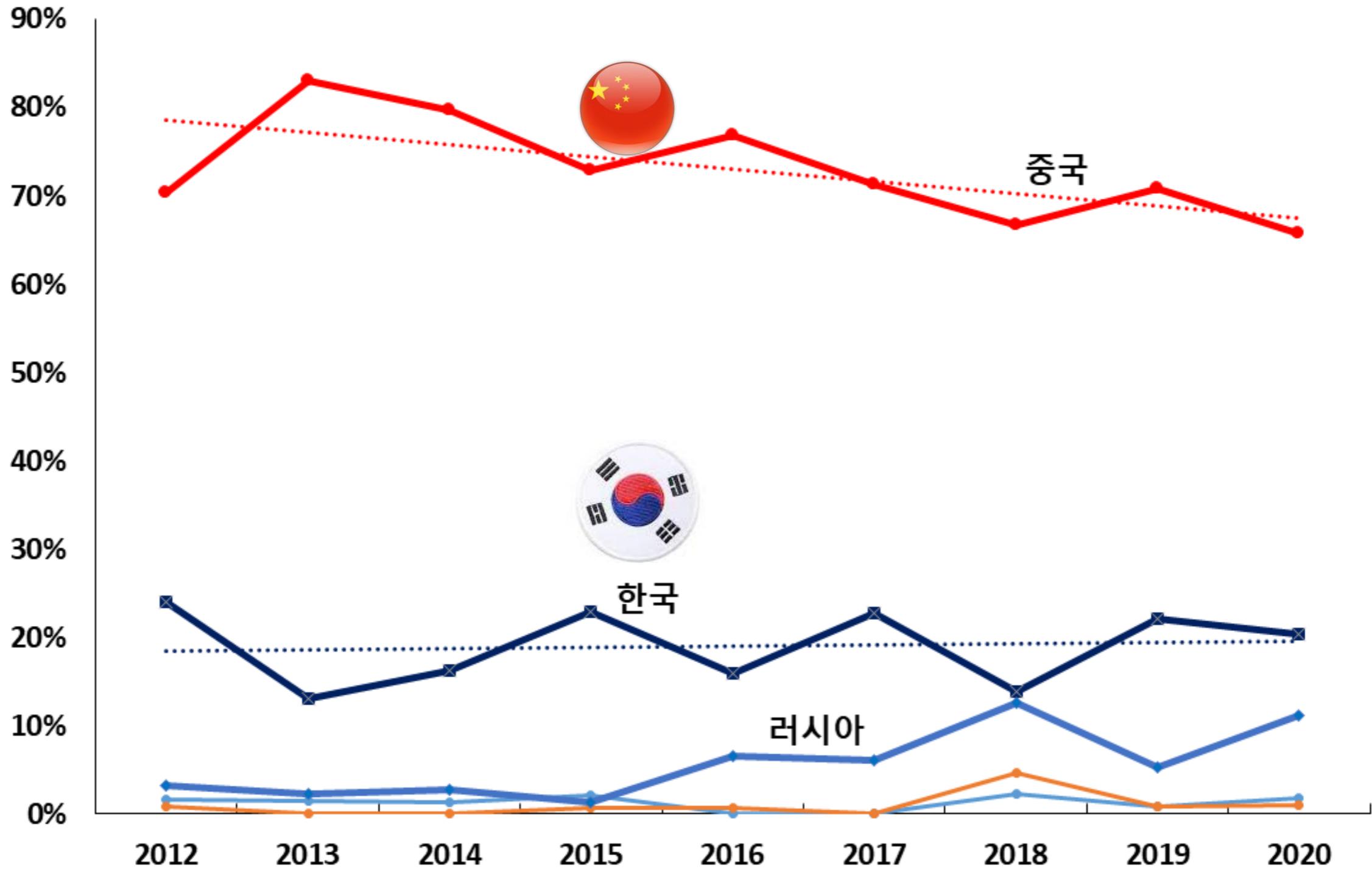
**IPUS**

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
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

# 북한 주민의 주변국 인식

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 
조동준

# 주변국 친밀감



# 주변국 친밀감 순위

	2014	2015	2016	2017	2018	2019	2020
중국	1	1	1	1	1	1	1
한국	2	2	2	2	2	2	2
러시아	3	3	3	3	3	3	3
미국	4	4	5	공동	5	공동	4
일본	5	5	4	4위	4	4위	5

중국>한국>러시아 순서는 유지됨.

자유진영(한국, 미국, 일본)에 대한 친근감이 22% 선에서 안정적.

권위주의진영(중국, 러시아)에 대한 친근감이 78% 선에서 안정적.

- 중국: 10년 동안 친밀감이 압도적으로 높은 국가. 10년간 감소 추세
- 한국: 10년 동안 친밀감 2순위. 평균 18% 유지
- 진영내 친밀감이 교체하는 경향 vs. 진영간 친밀감이 고정적

# 주변국 친밀감-mlogit 분석

중국 친밀감을 기준점  
미국/일본 친밀감의 극소수

한국 선택

변수	계수	표준편차	유의	
성별	-0.0426	0.2137		한국 친밀감의 요인 - 세대 (노년층 → 한국)
노동당 당원	0.2324	0.3108		- 장사 경험
학력	0.0229	0.1540		- 한국내 친척
세대	-0.3169	0.1278	**	- 한국 문화 접촉
	-0.3904	0.2256	*	상식 vs. 이외 결과 - 외부 정보유입 → 친밀감
한국내 친척	-0.5391	0.2021	***	- 왜 젊은 세대가 중국으로?
한국 문화접촉	-0.4387	0.1648	***	
경제성장률	0.07970	0.0468	*	
복중관계	-0.0242	0.0337		
상수	0.5517	0.7246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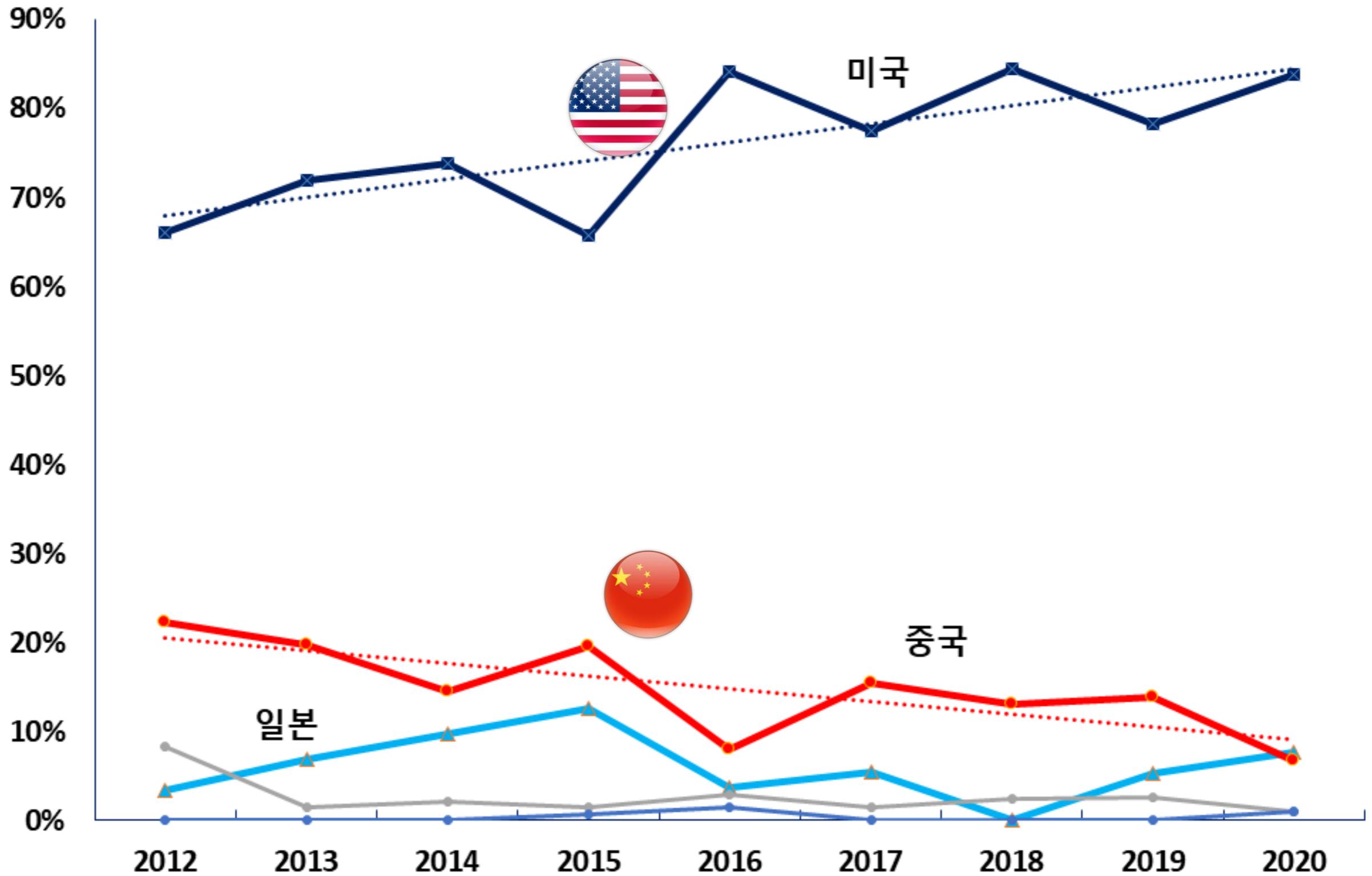
# 주변국 친밀감-연령대

세대 구분	중국	한국	일본	미국	러시아
1953년 이전 출생	65.79%	23.68%	2.63%	5.26%	2.63%
1954-1973년 출생	66.67%	26.67%	0.00%	0.00%	6.67%
1974-1984년 출생	75.51%	20.41%	0.00%	2.05%	2.05%
1985년 이후 출생	73.31%	14.62%	1.06%	1.27%	9.75%

젊은 북한 주민에게는 친밀한 국가가 중국과 한국을 제외하고는 없다는 결론!

노년층이 한국에 더 친밀감을 가짐 → 우려 사항

# 평화 위협국



# 평화 위협-mlogit 분석

미국 선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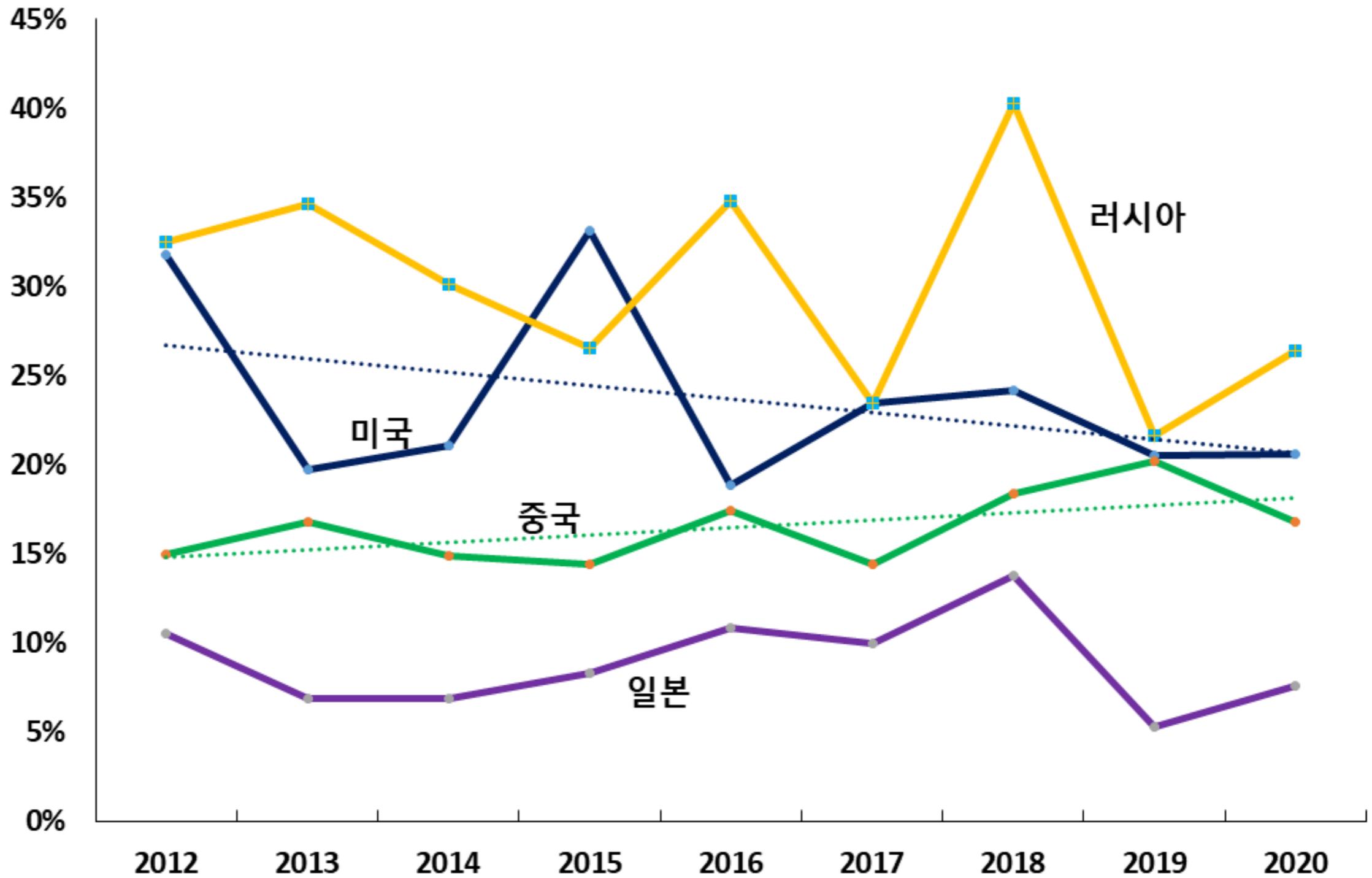
변수	계수	표준편차	유의	중국 위협감을 기준점 한국/일본 위협감은 극소수
성별	0.6708	0.2346	***	미국 위협감의 요인 - 성별 (여성 → 미국 위협감)
노동당 당원	0.0688	0.3106		- 한국내 친척
학력	0.2259	0.1556		- 한국 문화 접촉
세대	0.2143	0.1409		- 대외 관계
장사 경험	0.2451	0.2081		상식 vs. 이외 결과 - 외부 정보유입 → 위협감 감소
한국내 친척	-0.3696	0.2164	*	- 왜 여성이 미국 위협감을?
한국 문화접촉	0.4609	0.1992	**	
경제성장률	-0.0058	0.0597		
북중관계	-0.1062	0.0393	***	
상수	-0.8558	0.7242		

# 평화 위협-성별/외부 정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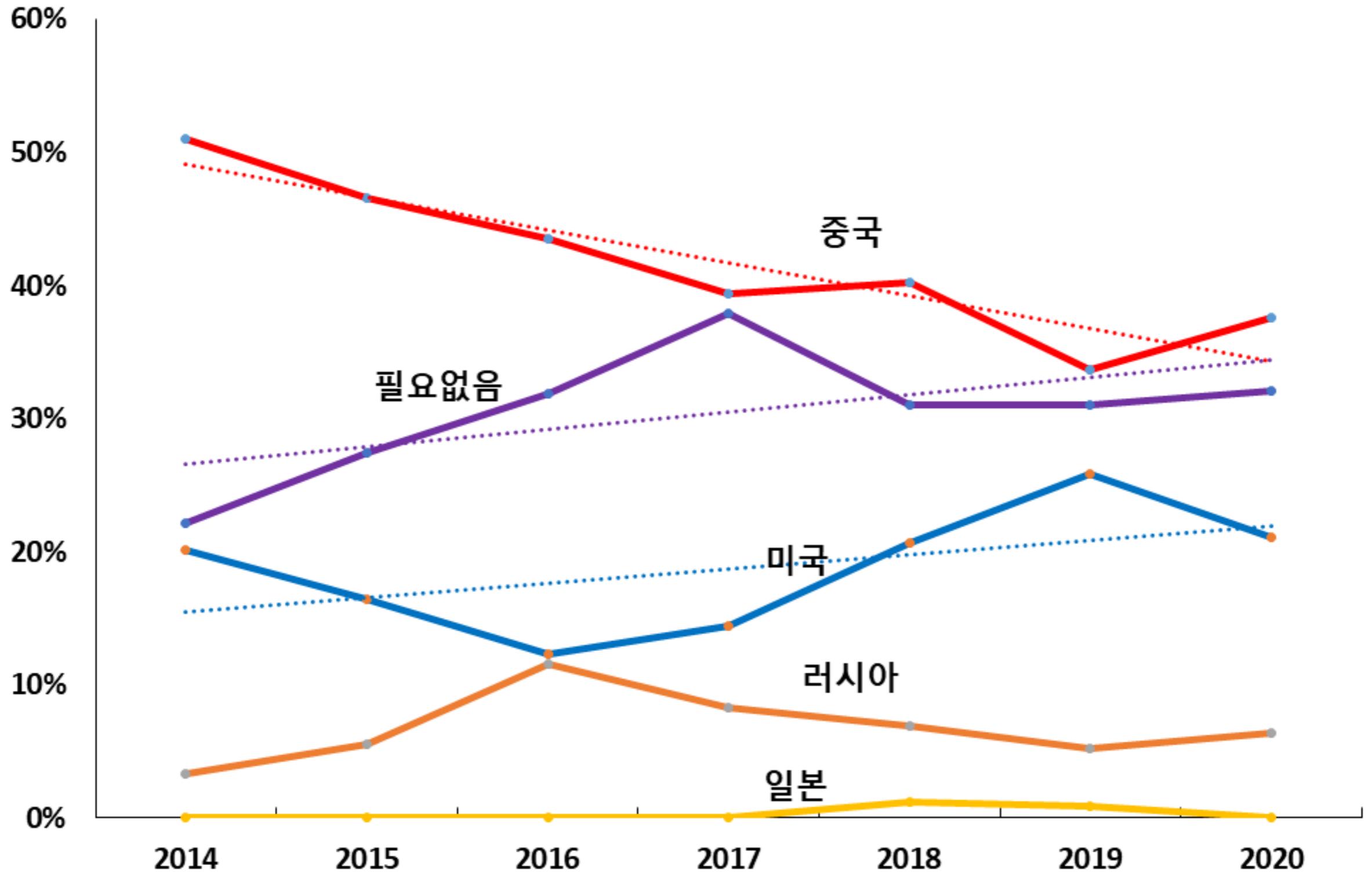
성별	미국	일본	한국	중국	러시아
남성	64.72%	6.05%	1.81%	17.94%	0.40%
여성	69.80%	5.50%	2.68%	10.47%	0.27%

성별	미국	일본	한국	중국	러시아
자주 접촉	71.09%	7.13%	1.39%	20.00%	0.40%
1-2 접촉	79.90%	6.07%	3.47%	11.28%	0.22%
접촉 없음	80.82%	4.80%	4.11%	9.59%	0.68%

# 주변국의 통일 희망



# 통일 과정에서 주변국의 협조



# 소결

- 중국과의 친밀감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거나 여전히 강함. 한국과 친밀감은 한반도위기 국면을 반영하지만, 18%선을 유지함. 진영내 친밀감의 교체함. 진영간 친밀감은 고정적.
-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잠재적 불안 유발자로 인식함. 미국발 위협감은 증가 추세. 한국발 위협에 대해서는 매우 낙관적 평가. 심지어 남북관계가 악화된 해에도 한국발 위협에 대한 인식은 변화가 없음.
- 통일과정에서 주변국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다는 기조 유지. 미국이 통일과정에서 중요하다는 인식이 증가됨. 2017년 위기를 반영한 일시적 현상인지 추후 관찰할 필요성이 있음.
- 문화접촉이 친밀감과 위협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.

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!